

북스

27개의 과학 유산 둘러싼 비밀을 풀다

어린이 책꽂이



▲내 이름은 김신데렐라=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수상작가 고재은씨의 동화집으로 아이들 마음속의 크고 작은 상처와 비탄을 살피는 이야기 네 편이 실렸다. 작가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자신의 어린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었는지 들여다본 흔적이 곳곳에서 묻어나다. (문학동네·8천800원)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세계의 화가=레오나르도 다 빈치부터 백남준까지, 각국을 대표하는 예술가이자 세계 미술사의 거장으로 꼽히는 14명 화가들의 성격, 그림에 대한 신념과 삶에 대한 가치관까지 알게 쉽게 설명했다. 또 그들의 대표작을 시대 순으로 실어 세계 미술사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시공주니어·1만1천원)



▲행운 가족='우리 이모는 4학년'으로 등단한 무안출신 작가 정관희씨의 창작 동화집. '신데렐라 놀이'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풍경을 담은 네 편의 동화가 실려있다. 아이들을 둘러싼 상황은 대체로 어둡고 쓸쓸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행복을 일구어간다. (창비·8천500원)



▲이산화탄소 탈것으로 알아보아요=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남극과 북극이 녹아 내리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아이들이 좀더 쉽게 이산화탄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숨을 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오토바이 등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비교했다. (사계절·9천800원)



▲너무 아깝지 않아?=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환경을 지키는 작은 습관 책' 시리즈의 첫 번째 권이다. '아깝다'는 말의 의미와 아깝게 버려지는 물, 나무, 음식, 에너지를 살펴봐 환경을 지키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룬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등도 함께 소개했다. (에리당·1만원)



▲악숙했으니까요-모니의 세가지 약속=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서있던 김승훈 신부와 뇌막염에 걸린 어린 소년과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재구성한 그림동화이다. "네가 다 나으면 너를 찾으러 갈게"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김승훈 신부는 1980년대 격정의 시간 속에서 소년의 고향집을 찾았다. (초록우체통·9천500원)



▲봄 여름 가을 겨울 별자리 이야기=계절에 따라 볼 수 있는 별과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준다. 쉽고 재미있게 별을 찾는 법, 별 이름을 왜 기억하는 법, 별들이 사는 우주의 신비와 별자리에 담긴 사연 등 주인공 신이와 신비의 할아버지와 삼촌에게서 밤하늘 별 이야기를 들으며 아름다운 꿈을 키워간다. (진선아이·1만2천원)

▲노래하는 눈동자='눈먼 소녀 미로, 바다를 보다'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을 내고 있는 프랑스 작가 알렉스 쿠소의 소설. 평생 고무줄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 공장 너머를 꿈꿔 온 주인공 윌리엄의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자신이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꿈꿔왔던 인생을 진짜인양 들려준다. (청어람 주니어·9천원)

도둑맞은 인류의...

파블루 루이스 공저



소설이 보다 본격적인 형태로 진화했다. 전통적인 의미의 소설이 주는 교양이라는 부분을 교육과 정보라는 직접적인 가치로 치환한 것이 소위 에듀픽션(Edufiction). 교육(education)과 소설(fiction)의 만남이라 할 수 있겠다.

소설로 과학의 역사를 보여주는 에듀픽션의 최근작 '도둑맞은 인류의 비밀을 찾아라'가 나왔다. 책은 실린 에듀픽션 시리즈의 세 번째 권으로 일본 '고양이는 과학적으로 사랑을 한다'와 독일의 '소설로 만나는 중세이야기'에 이은 스페인 판 에듀픽션이다. 과학사적으로 중요한 27개 과학 유산을 둘러싼 비밀을 풀어가는 형식의 소설은 작가 모이세 스테 파블로와 현직 물리학 교수인 호아킨 루이스가 함께 썼다.

어느 날 미국 윌터스 박물관에 있던 아르키메데스의 양피지가 사라졌다. 이 책은 근대 과학의 기원이 되는 비밀이 담긴 책이다. 이 양피지를 시작으로 갈릴레오의 가운데 손가락, 뉴턴의 원고, 아인슈타인의 뇌 일부, 카르노의 자전기, 벤저민 프랭클린의 하모니카 등등이 차례로 사라지거나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관계자들이 하나둘 살해된다.

영국, 미국, 프랑스의 비밀요원인 에보트, 제라드, 홀리아는 이 사건을 풀기 위해 모이고 경찰상종교단체들을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미모의 홀리아 요원은 수학자이자 발명가인 팡공 마니아 빅토르 보스코를 초빙해 수사를 착수한다.

그러면서 역사, 수학 등 모든 학문을 꿰뚫고 있는 위대한 A라고 불리는 해커에게 자문을 구하고 사건들은 '과학의 역사'의 순서대로 일어나고 있음이 밝혀진다. 실마리에 가까워지자 요원들은 하나둘씩 죽음을 맞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던 A도 온몸이 짓겨진 상태로 죽는다.

책은 미스터리 장르의 과학 소설을 표방하면서 과학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게 장점이다. 홀리아와 보스코의 미스터리 추적 과정이 손에



미국 윌터스 박물관에 보관 중인 아르키메데스의 필름프세스트. 천년 이상된 고대 양피지에 글이 새겨진 것으로 현대과학은 X선 형광장치(XRF)와 고도의 컴퓨터 기법을 이용하여 아르키메데스의 책 원문을 붉은 글씨로 보이게 하는 데 성공했다.

땀을 쥐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르키메데스부터 갈릴레이, 뉴턴, 슈뢰딩거, 하이젠베르크,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해커 A가 들려주는 위대한 과학자들의 유산과 이론을 둘러싼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책 중간 중간 사건과 관련된 과학자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중요한 업적을 마치 백과사전을 보듯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교육적 가치도 높혔다. (살림friends·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형 해리포터' 판타지 소설

치우와 별들의 책

이준일 지음



1억 원 고료 '제1회 조선일보 판타지 문학상'을 거머쥔 이준일(41)씨의 수상작 '치우와 별들의 책'이 출간됐다. 열다섯 살 소년 치우가 태평양 외딴 섬에 마법의 장막을 치고 수천 년간 숨어 사는 마법사의 땅 '가이아 랜드'에 떨어지면서, 마법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화신 메테스타에 맞서 싸운다는 판타지 모험담이다.

한국형 '해리포터'로 불릴 만큼 책에서 한시도 눈을 땄을 수 없는 마력을 뽐내는데 이 소설은 톨니처럼 맞물리는 반전과 동양의 무협 판타지적 복선 구조 위에 짜인사 있는 이야기를 펼쳐낸다.

마법의 태양검을 사이에 두고 치우와 마법사들의 흥미로운 마법 대결이 펼쳐지는 소설은 어머니의 병(저주)을 나게 하기 위해 분투하는 아들의 감동적인 가족에서부터, 인류를 위협하는 핵과 지구의 패권주의에 대한 윤리적 고찰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흥미 위주의 판타지 소설의 경계를 뛰어 넘는다.

"선악의 대립과 양면성이라는 고전적 주제를 장르의 짜임새에 녹여 넣은 판타지 소설이자 성장소설"이라는 심사평처럼, 판타지라는 장르 아래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감동과 재미, 그리고 독특한 유머코드까지 선사한다는 점도 이 소설의 미덕이라 할 수 있겠다. (문학수첩·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표절, 그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

수상한 미술관

이은 지음



'미술관의 쥐' '코미디는 끝났다' 등 걸작 있는 작품을 발표하며 한국 추리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주목받고 있는 이은(45)씨가 미술관을 무대로한 소설 '수상한 미술관'을 냈다. 미술품 위작 사건을 통해 미술품 유통 시장의 현실을 비판했던 '미술관의 쥐'에 이은 두번째 작품.

최근 문화계 전반에 만연한 표절 문제를 화두로 삼아 표절을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진정한 예술 작품의 역할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표절로 인생을 망친 한 남자가 그에게 표절 판정을 내린 미술 평론가 김이오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아내를 납치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작가와 미술 평론가가 납치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거나 반나 고호, 파카소, 마네, 고야 등 서양 미술사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그림들을 인용하며 표절과 패러디의 차이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벌인다.

이은씨는 최근 일본 고단사에서 선정한 아시아를 대표하는 추리작가 중 한 명으로 선정될 정도로 국제적인 관심을 받는 작가로 성장했다.

한편 소설에는 패러디 기법과 관련한 유명한 작가의 명화 작품 40여 점을 컬러로 수록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노블리아·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유럽·일본, 박물관·식물원 답사

파리의 식물원

이종찬 지음



의학을 비롯해 동서양 문명을 꾸준히 탐구해온 과학사가 이종찬씨가 유럽과 일본을 여행하며 감상을 적은 여행기 '파리의 식물원에서 데자마박물관까지'를 냈다.

저자는 과학사 연구자답게 그곳에서 자연사박물관과 식물원, 과학관 등 독특한 것들을 탐방했다. 그러나 어느 여행기와는 달리 여행지에 대한 감상은 거의 없는 대신 그 지역의 자연과학사를 파헤치며 끊임없이 "그렇다냐, 한국은?"이라고 묻고 있다.

책은 유럽·일본에서 식물학, 자연사, 박물관, 의학, 또 나아가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된 이유를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에서 짚어본다.

저자는 과학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인문학자들이 간과해온 유럽·일본 문화의 특징과 지식 체계를 면밀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저자는 "왜 한국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는가?" "알렉산더 훔볼트와 조선 실학자들의 차이는?" 등 기술과학과 상업을 경시했던 조선시대의 한계와 문명형 지식 체계를 편향된 한국사회를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해니루·1만2천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Table with multiple columns for public notice, including company information for (주)국민법률경매, contact details, and various legal notices.